

프리카리아트 여성의 해방 - 박해영 작가의 <나의 아저씨>를 경유한 <나의 해방일지> 고찰

이유경*

1. 들어가며
2. 혁명과 에로스가 부재한 세계에서 프리카리아트 여성
3. 정규직 남성 노동자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연대의 서사로서 <나의 아저씨>
4. 프리카리아트 여성 노동자 해방의 서사로서 <나의 해방일지>
5. 나가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박해영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신자유주의 시대를 탈주하는 '노동자의 해방일지'로 독해하려는 시도다. 본고는 <나의 해방일지>를 작가의 전작, 전작 <나의 아저씨>를 넘어서려는 시도로 해석한다. <나의 해방일지>는 삼안 E&C라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 박동훈과 파견직 사원 이지안의 연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드라마에서 회사의 대표인 도준영이 가정을 위협하고, 진급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만년 부장 박동훈은 이지안의 도움을 받아 상무로 진급하게 된다. 그리고 박동훈의 도움으로 이지안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수 있게 되고, 불법 대부업체와도 연을 끊고 후계동 공동체의 조력을 받게 된다. 최종적으로 결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한국어문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및 협동과정 비교문학 강사

말에서 박동훈이 자신이 새로 세운 회사의 대표가 되고, 이지안은 정규직 근로자가 되면서 해피엔딩을 보여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연대가 불법 도청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도청을 매개로 인연을 맺은 박동훈이 우연히도 그리고 다행히도 도덕적인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드라마는 그 한계를 드러낸다.

드라마는 두 가지 과제를 남긴다. 불법 도청과 같은 방식으로 타인의 속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프레카리아트 여성의 주변에 박동훈과 같은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안을 괴롭히는 광일과 같은 인물만 주변에 있다면 프레카리아트 여성은 누구와 연대하고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의 지점에서 파생된 작품이 <나의 해방일지>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산포에 살며 긴 출퇴근 시간에 시달리는 미정은 돈을 벌리고 갚지 않는 연인 때문에 뜻하지 않은 부채를 지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회사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는 프레카리아트 여성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미정은 구씨에게 추앙을 명령한다. 실제로는 <나의 아저씨> 속 광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씨이지만, 구씨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타인을 응원하고 배려하는 방식의 '추앙'을 통해 두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보여준다.

그리하여 박해영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는 에로스가 불가능한 시대에 단순히 연민을 기반으로 한 공감을 넘어서 '자기 해방'이라는 '윤리로서의 정치'를 보여준다.

(주제어: 추앙, 해방, 노동,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1. 들어가며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해방은 어떻게 가능해질 것인가? 박해영 작가는 <나의 아저씨>에 이어 그 후속작인 <나의 해방일지>에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여성 주인공의 해방을 모색한다. 저소득·불안정노동에 던져져 있으며 사회적 취약 계층에 내몰린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평등 문제는 젠더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화는 곧 여성 노동자 문제”라고 할 만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남성 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이라는 기존의 노동운동에서 배제되고 주변화되면서,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¹⁾ 여성 노동자의 해방을 위해 박해영 작가가 선택한 방식은 ‘추앙’이다.

“사랑으론 안 돼. 추앙해요.”²⁾ 주인공 염미정이 알콜중독으로 보이는 구 씨를 향해 내뱉는 추앙이라는 명령에 힘입어 <나의 해방일지>(JTBC, 2022.04.09.~2022.05.29.)는 방영 당시 소위 ‘추앙 신드롬’을 일으키며, 화제를 모았다.³⁾ 작가 박해영은 ‘추앙’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회자 될 줄 몰

1) 요코타 노부코, 『한국 노동시장의 해부: 도시 하층과 비정규직 노동의 역사』, 요코타 노부코 역, 그린비출판사, 2020, 287~291쪽; 강현아, 「노동조합의 불평등구조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 축락직 여성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 제38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5.

2) 박해영, 『박해영 대본집. 나의 해방일지 1』, 다산북스, 2023, 128쪽. 본고는 다산북스에서 출간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대본집과 JTBC에서 송출되었던 드라마 방영분을 모두 참조할 예정이다.

3) 빅카인즈에 따르면 ‘추앙 신드롬’으로 검색되는 기사는 2021년에 3건에 불과하던 것이 드라마가 방영되던 2022년 당시에는 61건에 이르며, 드라마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기사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추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추앙’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가 높아졌다.(무기명, <추앙 신드롬>, 『빅카인즈』, 생생일자 모음. <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접속일: 2025.1.14) 심윤희는 SNS를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추앙이라는 단어가 자주 발견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추앙이 “새로운 ‘위로의 언어’”로 가능했다고 평가한다.(심윤희, <[필동정담] 추앙 신드롬>.

랐지만, “핵심이 담긴 대사”이기 때문에,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까지 숨겼다고 전한다.⁴⁾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추앙’이 관계의 해방을 위한 상대에 대한 무조건적 절대 긍정이나 절대 지지를 뜻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추앙’ 이진 오해의 소지가 별로 없는 단어잖아요. **절대 긍정 혹은 절대지지**. 네가 내 애인이 될 땐나 어떤 조건을 갖췄기에 관계를 이어나가겠다는 말이 아닌 거죠. 사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조건화되어 있잖아요. 이게 치명적인 실수인 게 뭐냐면, 내가 조건을 들이밀 때 상대는 내 조건을 안 보겠냐는 거죠. 사람이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관계가 다 치사해지는 거고요. 해방되기 위해서 관계에 대해 얘기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흘렀다고 할 수 있어요.⁵⁾(밑줄 및 강조는 인용자)

에 등장한 ‘추앙’과 ‘해방’의 의미를 탐구하는 본격적인 연구도 등장했다. 최윤희와 김태완은 염미정이 구씨에게 요청한 ‘추앙’을 실패를 반복해야 했던 염미정의 “퇴행적 욕구”의 반영으로 보았으며,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는 사회를 살아야 하는 MZ세대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구와 결부했다.⁶⁾ 박미경은 미정의 ‘추앙’을 도구적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로의 전이를 부르는 “상대를 향한 무조건적 응원”으로 해석하면서, “상대를 향한 사려깊은 배려”이자 동시에 “상호 주체적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하

『매경칼럼』, 2022.5.24., <https://www.mk.co.kr/news/columnists/10329787>. (접속일: 2025.1.14.)

4) 박혜영, 「작가 인터뷰 : 박혜영」, 『박혜영 대본집. 나의 해방일지 4』, 다산북스, 2023, 261쪽.

5) 장주연 편, 「여기 이 작가 : 드라마는 쾌(快)를 위함이지 - JTBC <나의 해방일지> 박혜영 작가」, 『W 방송작가』 196, 2022. <http://www.ktrwawebzine.kr/page/vol196/view.php?volNum=vol196&seq=1>. (접속일: 2025.1.14.)

6) 최윤희·김태완,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해방’과 ‘추앙’ 의미 고찰」, 『인문사회 21』 제13권 5호, 인문사회 21, 2022, 530쪽.

는 명령으로 읽는다.7) 김동환과 홍종열은 <나의 해방일지>가 “신자유주의 사회에 대해 저항할 힘을 잃”고 집단적으로 권태에 빠진 청년세대가 모색하는 ‘해방’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8) 황혜진도 <나의 해방일지>가 평범한 주인공이 신자유주의 한국의 억압적 현실에서 해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간주한다.9) 이정옥은 <나의 해방일지>가 낭만적 사랑이 퇴색된 감정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 유토피아적이거나 디스토피아적이지 않은 새로운 사랑의 상상력을 환기한다고 주장한다.10) 나아가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주인공별로 해방의 양상을 분류한 연구도 등장하였다.11) 선행연구에서 <나의 해방일지>에 등장하는 ‘추앙’은 대체로 신자유주의가 추동하는 한국의 청년세대의 ‘해방’으로 귀결된다.

구씨 **추앙한다.**

미정 !

‘사랑한다’ 톤. 자기도 말해놓고 계면쩍은지 웃고, 미정도 웃고.
그런 두 사람의 모습에서.12)(밑줄 및 강조는 인용자)

7) 박미경, 「도구적 관계 사회에 대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성찰」, 『한국언어문학』 제125집, 한국언어문학회, 2023, 185-187쪽.

8) 김동환·홍종열, 「드라마 속 청년세대의 집단적 권태와 능력주의의 인과성 고찰: <나의 해방일지>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61호,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24, 237쪽.

9) 황혜진, 「<나의 해방일지>에 나타난 일상의 억압과 주체의 해방」, 『씨네포럼』 제46호,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23, 81-83쪽.

10) 이정옥, 「헤테로토피아적 상상력과 현대사회의 해방과 사랑에 대한 성찰 - <나의 해방일지>를 중심으로」, 『世界文學比較研究』 제85권, 세계문학비교학회, 2023, 156쪽.

11) 신정아·최용호, 「<나의 해방일지>에 나타난 시차적 리얼리즘과 해방의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7권,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2; 장은호, 「TV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캐릭터 연구: 주요인물의 해방의 의미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작가의 대본이 보여주듯, ‘사랑’이 걸맞는 자리에 ‘추앙’이 들어서며, 에로스가 어울릴 법한 자리에 추앙을 환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의 해방일지>의 주인공이자 카드회사의 계약직 직원인 염미정이 “20대 후반의 비정규직 프레카리아트 여성”¹³⁾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¹⁴⁾ 즉, 박해영 작가는 프레카리아트 여성의 해방을 이끄는 원동력이 에로스가 아니라 ‘절대 긍정’, ‘절대 지지’, 다시 말해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 환대를 의미하는 ‘추앙’이라는 윤리적 방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나의 해방일지>를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나의 해방일지>를 <헤어질 결심>이나¹⁵⁾ <마스크 걸>과 비교하는 연구¹⁶⁾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해방일지로서 <나의 해방일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전작인 <나의 아저씨>를 경유할 필요가 있

12) 박해영, 『박해영 대본집. 나의 해방일지 2』, 다산북스, 2023, 186쪽.

13) 김홍중, 「붕괴와 추앙 사이 - <헤어질 결심>과 <나의 해방일지>에 대하여」, 『뉴 래디컬 리뷰』 제3권 2호, 뉴 래디컬 리뷰, 2023, 234쪽. 가이 스탠딩이 주창한 ‘프레카리아트’는 ‘불확실하다’는 의미의 “precarious”와 프롤레타리아트의 합성 신조어이다. 가이 스탠딩은 프레카리아트가 “대자적 계급”이라기보다는 “형성 중인 계급”이라고 주장한다. 최상층의 “엘리트”, 그 아래 안정적 풀타임 고용 상태로 일하는 “샐러리아트”, 숙련기술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프로피시언(profician)”이 있으며 프로피시언 아래에서 일하는 피고용인, 마지막으로 이러한 네 집단 아래에서 성장 중인 “프레카리아트”가 있다. 가이 스탠딩은 프레카리아트 주변에 실업자, 사회적 약인인 부적격자가 포진해 있다고 설명한다.(가이 스탠딩, 『새로운 위험한 계급』, 김태호 역, 박종철출판사, 2014, 23-25쪽.) 그러나 문혜림은 프레카리아트는 프롤레타리아트로 일원화할 수 없는 프롤레타리아 내부에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를 설명하는 것일 뿐, 결코 “새롭게 출현한 계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문혜림, 「프레카리아트 담론과 마르크스 계급론 : 프롤레타리아트 개념과 계급 규정에 관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8권 4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21, 168쪽.)

14) 박미경은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는 미정의 회사 환경 속에서 미정이 은밀하게 대상화, 주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박미경, 앞의 글, 182쪽.)

15) 김홍중, 앞의 글, 226-239쪽.

16) 김유민, 「한국 사회의 에로스 자본과 낭만적 사랑 : <마스크걸>과 <나의 해방일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다. <나의 아저씨>의 주인공, 지안과 박동훈은 같은 삼안 E&C라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외치며, 신자유주의 체제는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차별함으로써 하나의 단결된 프롤레타리아의 연대를 방해한다. 그런데 정규직 남성 노동자 박동훈과 파견직 여사원인 이지안의 사이에 피어나는 연민과 공감을 고려할 때, <나의 아저씨>는 박해영 작가가 제시하는 또 다른 노동자 연대의 서사로 읽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동훈 없이는 프리캐리아트 여성 노동자, 이지안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의 아저씨>의 한계는 명백하다. 그리하여 본고는 <나의 해방일지>가 서로를 향한 ‘연민’과 다른 ‘추앙’이라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방식을 제시한다고 전제하며, <나의 아저씨>를 통과한 성찰의 결과물로서 <나의 해방일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혁명과 에로스가 부재한 세계에서 프리캐리아트 여성

가이 스탠딩은 프리캐리아트가 1975년에서 2008년 사이에 벌어진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지구적인 전환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프리캐리아트가 포퓰리즘 정치와 네오파시스트의 유혹에 취약하기 때문에 위험한 계급이라고 역설한다.¹⁷⁾ 한국에서도 프리캐리아트 노동자 집단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며, 한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불안정노동에 머무르는 집단이 전체의 30% 이상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¹⁸⁾ 연구

17) 가이 스탠딩, 앞의 책, 60-61쪽.

18) 이승윤, 「녹아내리는 노동, 연대가 어려워진 청년들」, 『광장 이후』, 문학동네, 2025, 188-190쪽.

에 따르면,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는 전통적 계급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새롭게 대두한 불안정한 계급을 의미한다. 프레카리아트를 프롤레타리아트의 하위 범주로 볼 것인지, 독립된 새로운 계급으로 볼 것인지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충돌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불안정노동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¹⁹⁾

프레카리아트가 전통적인 프롤레타리아트 관점과 충돌하는 이유는 ‘혁명’의 부재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이 무너지고, 자본주의 침단이라 할 수 있는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는 청년들, 소위 ‘자본주의 키즈’²⁰⁾에게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은 요원해 보인다. 실제로 박해영의 드라마 작품 속 주인공 청년들은 혁명을 꿈꾸지 않는다. 〈나의 아저씨〉의 지안은 그 이름이 뜻하듯 궁극적으로 편안함에 이르기를 원하며²¹⁾, 〈나의 해방일지〉속 미정이 추구하는 ‘해방’도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과는 거리가 있다. 미정은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하기보다 이름도 모르는 구씨에게 ‘추앙’을 명령한다.

마르크스는 일찌감치 룬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용어를 통해 프롤레타리아트와 다른 불안정한 계급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룬펜 프롤레타리아트는 상대적 과잉 노동인구와 관련된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의 메커니즘”의 결과로서 파생한 “빈곤”한 노동자군과 “구호빈민”을 일컬어, “상대적 과잉인구”로 정의한다. 마르크스에게 상대적 과잉인구란 “자본에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노동력의 한없이 큰 저수지”로 기능한다. 이러한 상대적 과잉인구는 호황, 불황, 공황의 시기에

19) 위의 책, 186쪽.

20)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21』, 미래의 창, 2020, 11쪽.

21) 16화 드라마의 말미에서 동훈은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라고 물으며, 지안은 그렇다고 대답한다.(〈나의 아저씨〉, 16화)

따라 변하므로, 고용의 안정을 이루지 못해 유동적이고, 잠재적이며, 정체되어 있다.²²⁾ 그중에서도 마르크스는 부랑자와 죄인,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적 과잉인구의 최하층에 있는 구호빈민, 즉 “본래의 ‘롬펜프롤레타리아트’”로 분류한다.²³⁾ 본래의 롬펜프롤레타리아트라고 지칭하는 이유를 짐작해보자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던 노동자라 할지라도 경기 불황이나 공황을 맞이하여 롬펜 프롤레타리아트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프롤레타리아트와 롬펜 프롤레타리아트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롬펜 프롤레타리아트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음화(陰晝)라고 할 수 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두 계급을 마르크스가 굳이 차별화한 까닭은 무엇일까?²⁴⁾ 드레이퍼는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트와 달

22) 카를 마르크스, 『자본론: 정치경제학비판 I(하)』,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17, 873쪽.

23) 위의 책, 877쪽. 드레이퍼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1845년 『독일이데올로기』에서 “과거의 낡은 사회적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엄밀한 사회학적 용어라기보다는 “임시방편”으로 ‘롬펜프롤레타리아트’를 사용하였으나, 1847년 혁명을 경과하면서 ‘롬펜프롤레타리아트’를 “부패한 대중”이자 “위험한 계급”의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드레이퍼, 『계급과 혁명』, 정근식 역, 사계절출판사, 1986, 317-327쪽.)

24) 프랑스의 부르주아 혁명을 살펴보았던 마르크스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왕권 재탈환의 과정에 롬펜프롤레타리아트의 지지가 있었다고 간주하면서, 롬펜프롤레타리아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 글에서 나타난 롬펜프롤레타리아트는 “생계 수단도 모호하고 출신 성분도 모호한 난잡스러운 방탕아들Roués 이외에도, 또 타락한 모험 인생을 보내고 있는 부르주아 자식들 외에도, 부랑자, 제대 군인, 전과자, 탈출한 갈레 선배 노예들, 사기꾼, 노점상, 유랑 거지, 소매치기, 요술쟁이, 노름꾼, 투쟁이 Maquereaus, 포주, 짐꾼, 문사, 손퐁금쟁이, 녀마주이, 칼 가는 사람, 땀쟁이, 걸인, 요컨대 뽕뽕이 흩어져 부초처럼 떠다니는 불확실한 대중, 프랑스 인들이 라 보엠 la bohème이라고 부르는 대중”으로 “모든 계급들의 이 폐물, 쓰레기, 찌꺼기”로 표현된다.(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최인호 외 역,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2』, 박종철출판사, 2018, 339-400쪽.)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 나타난 롬펜프롤레타리아트를 향한 마르크스의 시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가라타니 고진, 『역사와 반복』, 조영일 역, 도서출판 b, 2008, 28-35쪽.

리 롬펜 프롤레타리아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고 주장한다.²⁵⁾ 롬펜 프롤레타리아트는 부패하여, 빈곤한 생활 처지로 인해 “반동적 음모에 매수”된다는 것이다.²⁶⁾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주장을 고려하면, 롬펜 프롤레타리아트의 특성은 빈곤한 경제적 여건과 그로 인한 혁명 정신의 탈각으로 요약되며, 롬펜 프롤레타리아트는 비정치적이고 비윤리적인 주체라 할 수 있다. 즉 롬펜 프롤레타리아트는 혁명을 꿈꾸지도 기대하지도 않으며, 혁명보다 생존을 앞세우고 있다.²⁷⁾ 그리하여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혁명과 거리가 먼 롬펜 프롤레타리아트에 가까우며,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현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심화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적 흐름은 노동의 유연화라는 명목 아래 고용의 불안정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완전고용과 노동자의 고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수요 중심의 경제정책인 케인스주의가 경제 침체를 맞이하여 동력을 잃고, 그 자리에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예고하는 것이었다.²⁸⁾ 결국 고용의 불안정성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했고, 노동

25) 드레이퍼, 앞의 책, 324쪽.

26)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주의당 선언」,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김보영 외 역, 박종철출판사, 2016, 410쪽.

27) “만일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필연적으로 계급으로 단결되고 혁명을 통해 스스로를 지배계급으로 만들고, 또 지배계급으로서 낡은 생산 관계들을 폭력적으로 폐기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 생산 관계들과 아울러 계급 대립의 존립 조건들과 계급 일반을 폐기하게 될 것이고, 또 이를 통해 계급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지배도 폐기하게 될 것”(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주의당 선언」, 앞의 책, 421쪽.)이라는 마르크스의 기대가 실현되려면, 결국 롬펜프롤레타리아트도 함께 공동으로 단결해야 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르크스가 예외적 존재로서 롬펜프롤레타리아트를 배제하는 것은 ‘혁명’의 수행에 있어 과제로 남는다고 할 수 있다.

28) 장귀연, 『비정규직』, 책세상, 2016, 42-52쪽.

자의 임금 수준이 낮아졌으며,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직장에서 노동자들은 회사에 애착을 느끼거나 보람을 느끼기 어렵게 되었다.²⁹⁾ 한국 사회에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발견된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규직은 기득권이 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양극화의 고착이 두드러진다.³⁰⁾ 비정규직 노동의 규모 자체도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여성화'가 심화하고³¹⁾, 심지어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빈곤층 편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³²⁾ 여성 노동을 중심으로 노동의 유연화가 주로 이루어지면서, 양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와 비교할 때 “이등직업신분”으로 전락했다고 할 수 있다.³³⁾

<나의 아저씨>의 이지안과 <나의 해방일지>의 염미정은 신자유주의 시장에서 취약한 주변부 노동자이자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젊은 여성 프리캐리야트를 대변한다. <나의 아저씨>에서 이지안의 경우 삼안 E&C의 파견직 근로자로서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월급을 받고 있으며, 부채를 갚기 위해서 퇴근 후에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통해 부수입을 벌어야만 한다. 회사의 비품인 인스턴트 커피를 훔쳐 마시고, 아르바이트하던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비닐봉지에 몰래 숨겨와야 저녁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청각장애와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모셔야 하는 가장으로, 국가의 사회

29) 위의 책, 64-73쪽.

30) 조계완, 『우리 시대 노동의 생애』, 알피, 2012, 123-127쪽.

31) 이병훈,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노동」, 최태욱 편, 『신자유주의 대안론』, 창비, 2009, 124쪽.

32) 김영란, 「신자유주의와 여성빈곤」, 『평화학연구』 제8권 3호, 사단법인 한국평화학연구학회, 2007, 283쪽.

33) 이영자, 「신자유주의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자성」, 『한국여성학』 제20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04, 132쪽.

보험으로부터도 배제되어있어 심각한 불안정노동에 내몰려 있다.³⁴⁾

그에 비하면 <나의 해방일지>에서 가족이 버티고 있는 염미정의 경우, 이지안보다는 형편이 나아 보이지만 카드회사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면서 정규직 직원과의 차별 속에서 버텨야 한다. 그리고 미정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산포시와 서울의 직장 간에 거리가 멀어 출퇴근으로 긴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미정은 시간과 돈 모두 부족한 “이중빈곤자”라고 할 수 있다.³⁵⁾ 게다가 산포의 집에서도 미정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식탁을 차리거나 밥일을 거드는 등 퇴근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극 중에서 불안정한 여성 노동자인 이지안과 염미정은 혁명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처지를 해결하게 된다. 두 사람의 처지는 관계를 통해서 변화를 맞이한다. 이지안이 ‘나의 아저씨’로 대표되는 박동훈을 만났다면, 염미정은 구씨와의 관계를 통해 변화를 꾀한다. 얼핏 보면 혁명의 자리에 에로스가 대체한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두 작품은 타나토스가 지배하고 있다.

<나의 아저씨>의 연인들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동훈의 형, 박상훈은 부인과 결별 수순을 밟고 있고, 동생 기훈은 배우인 최유라와 연애했지만 결국 헤어졌으며, 주인공인 박동훈의 아내 강윤희는 불륜관계에 빠져 있다. 동훈의 형제들과 후계동 조기 축구회의 단골 술집 사장인 정희의 연인은 주지 스님이 되어 인연을 맺을 수 없다. <나의 아저씨>의 방영 전,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아저씨와의 연애를 예상했던 시청자들의 저항이 무색하게³⁶⁾ 작품의 주인공인 박동훈과 이지안의 관계를 비롯해 작품 속 인

34) 이승윤은 불안정노동의 조건으로 불안정한 고용관계, 저임금, 사회보험의 배제 여부를 든다.(이승윤, 「녹아내리는 노동, 연대가 어려워진 청년들」, 앞의 책, 191쪽.)

35) 이승윤,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문학동네, 2025, 21쪽.

36) ‘나의 아저씨’를 둘러싼 오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권두현, 「관계론적 존재론의 정동학—<나의 아저씨> 안팎에서 벌어진 젠더정치의 기술적 차원에 관하

물들의 관계는 대체로 에로스에서 벗어나 있다.³⁷⁾ 〈나의 아저씨〉는 사실상 에로스 부재의 세계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랑이나 결혼이라는 ‘환상적 대상물’을 제시하는 여타의 TV 드라마와 〈나의 아저씨〉가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³⁸⁾ 이와 같은 에로스의 부재는 역설적으로 〈나의 아저씨〉를 노동자 서사로 읽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두 작품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장례와 죽음이다. 〈나의 아저씨〉에서 박동훈이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화려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뜻하지 않게 지안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고인이 쓸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장례에 힘쓴다. 마찬가지로 〈나의 해방일지〉에서는 삼남매의 어머니인 곽혜숙이 죽음을 맞이한다. 죽은 어머니의 유골함을 집으로 가져온다는 설정은 곧, 이들이 살고 있는 산포의 집이 묘지와 다름없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여], 『한국극예술연구』 제66집, 한국극예술학회, 2019, 44-47쪽.

37) 김세준, 「공동체적 윤리에 대한 초월적 상상력 고찰: TV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대상으로」, 『스토리&이미지텔링』 제21집,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21, 103쪽. 김세준에 따르면 박동훈을 향한 이지안의 정념은 “에로스적”이라기보다는 좋은 인간을 좇는 “아이의 소망”에 가깝다.(위의 글, 117쪽.) 15화에서 동훈의 아내, 윤희는 동훈에게 지안이 두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준영의 계락을 윤희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을 동훈에게 고백한다. 지안이 동훈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희가 질투 없이 동훈에게 지안이 “온몸으로 동훈씨 지키고 있었어”라며 두둔할 수 있었던 이유도 지안이 동훈에게 에로스의 대상이 아니라, 동훈과 같은 노동자이자 동료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나의 아저씨〉 15화) 김세준은 해당 장면을 윤희가 어른으로서 윤리를 회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김세준, 앞의 글, 118쪽.) 그런데 〈나의 아저씨〉를 에로스라는 환상을 인간애라는 환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김세준, 앞의 글, 114쪽.), 동훈과 지안의 관계를 노동자의 연대로 치환할 때, 윤희의 이러한 배려가 더 쉽게 설득력을 얻는다.

38) 위의 글, 103쪽.



〈그림 1〉 목이 부러진 장미를 바라보는
염기정
(〈나의 해방일지〉 16화)



〈그림 2〉 장례지도사 교육과제를
내려다보는 염창희(〈나의 해방일지〉
16화)

삼형제의 장녀인 염기정은 이혼남인 조태훈과 만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목이 부러진 장미로 표현된다.³⁹⁾ 현아의 죽어가는 남자 친구를 돌보며, 어머니의 죽음을 제일 처음 알게 되었던 염창희는 우연한 계기로 장례지도사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타나토스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나의 해방일지〉에서 에로스는 찾아보기 어렵다.

불안정한 노동자인 두 프레카리아트 여성은 모두 무표정으로 표현된다. 〈나의 해방일지〉에서 카드회사 계약직 직원인 미정은 침묵⁴⁰⁾과 표정 없는 얼굴로 등장한다. 미정의 무표정한 얼굴은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얼굴”⁴¹⁾로 소개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실제로 미정은 일상에서도 쉽게 죽음을 발견한다. 9회에서 염미정은 구씨가 죽은 쥐를 볼까봐 염려하여 미정을 다른 길로 인도하려 하자, “이런 동네에선 아침마다 하나씩 시체를

39) 〈나의 해방일지〉 3화에서 염기정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참수당한 남편의 머리를 치마폭으로 받아내거나, 죽은 예수의 시체 옆에 있는 마리아로 표현된다.

40) 염미정을 소개하는 글에서 미정은 말에 재주가 없으며, 미정이 하는 말과 또래의 말이 다르며, 어떤 말도 “미정의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박해영, 『박해영 대본집. 나의 해방일지 1』, 11쪽.) 황혜진은 미정의 침묵을 비정규직인 미정을 향한 “차별의 비가시성”의 형태로 바라본다.(황혜진, 앞의 글, 86쪽.)

41) 위의 책, 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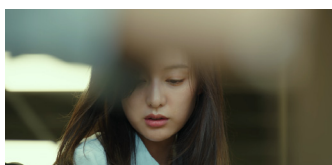
마주”한다며, 동물 사체를 보는 경험이 일상적이라고 이야기한다.⁴²⁾ 미정은 길에서 웃으며 지나가는 커플을 쳐다볼 때도, “다 무덤으로 가는 길인데, 뭐 그렇게 신나고 좋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정은 “망가진 사람들”이야말로 “훨씬 더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⁴³⁾(〈나의 해방일지〉 4화)

미정은 사무실 바닥에 떨어진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네일을 보면서도 “여자의 시체를 보는 것 같”다고 느낀다.(〈나의 해방일지〉 9화) 시체를 이야기하는 미정의 표정은 구씨나 사무실 직원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평이한 목소리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미정의 얼굴은 놀랍도록 무표정하다. 네일에서 시선을 뗀 미정이 옆자리 여직원을 향해 자동적으로 웃으며 반응하는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 이러한 미정의 무표정은 더욱 부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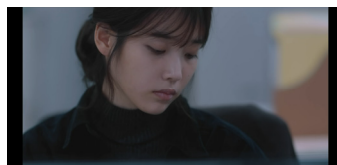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나의 아저씨>에서 이지안도 무표정으로 표현된다. 에피소드 1화에서 회사 안에 들어온 무당벌레를 보고 여성 직원들이 기겁하지만, 지안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벌레를 잡아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동훈은 지안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본사의 직원들과 파견직 직원 사이의 보이지 않은 위계 속에서 파견직 직원들의 상냥함에 익숙해져 있던 본사의 직원들은 파견직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무표정으로 응대하는 이지안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한다.

42) 박해영, 『박해영 대본집. 나의 해방일지 1』, 18쪽.

43) <나의 아저씨>와 <나의 해방일지>의 대사는 JTBC 방영본을 중심으로 내주 형식으로 표기하기로 한한다. (박해영 극본, 김석운 감독, <나의 해방일지〉 1, JTBC, 2022.4.9. ~ 박해영 극본, 김석운 감독, <나의 해방일지〉 16, JTBC, 2022.5.29. 박해영 극본, 김원석 감독, <나의 아저씨〉 1, tvN, 2018.3.21. ~ 박해영 극본, 김원석 감독, <나의 아저씨〉 16, tvN, 2018.5.17.) 기타 대본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로 별도 표기할 예정이다.



〈그림 3〉 바닥에 떨어진 네일을 바라보는 무표정한 미정 (〈나의 해방일지〉 9화)



〈그림 4〉 팔에 붙은 무당벌레를 떨어뜨려 죽이는 무표정한 지안 (〈나의 아저씨〉 1화)

본사 직원과 파견직 직원, 정규직 사원과 계약직 사원 사이의 불평등한 위계 속에서 웃음과 상냥함이 강요되는 현실 앞에 이지안과 염미정의 무표정은 두 프리카리아트 여성이 불편 부당한 현실을 가까스로 견딘다는 방증이다. 이지안과 염미정의 무표정은 불안정한 노동자의 지위로 인해 사회적인 차별로 인한, 즉 ‘무시’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지안과 염미정은 각각 파견직 직원, 계약직 사원이기 때문에 무시를 겪는다.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되고 소외된 하층 계급의 두 여성 주인공은 ‘무시’라는 실존적 경멸에 직면한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성 파괴에 주목했던 리차드 세넷은 사회적으로 “존중이 공급 부족에 시달”⁴⁴⁾린다고 주장한다. 세넷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불평등이 단순히 경제적 부족이나 불충분에 그치지 않고, 인격적 존중의 결여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예란 테르보른도 마찬가지로 실존적 불평등에 주목한다. 실존적 불평등이란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격의 실존적 평등”이 실패하고, “인격적 자율성과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할 때 발생하는 불평등을 말한다.⁴⁵⁾ 악셀 호네프는

44) 리차드 세넷, 『불평등 사회의 인간 존중』, 유강은 역, 문예출판사, 2025, 16쪽.

45) 예란 보르테른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전통적인 불평등 연구에서 벗어나 생명력 불평등과 실존적 불평등, 자원 불평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한다. 실존적 불평등의

이처럼 불평등한 세계에서 주체들이 “대등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 공동체의 ‘연대’를 상정하면서, ‘인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⁴⁶⁾ 호네트에 따르면, 사회적인 가치의 위계질서에 따라, 한 개인이 열등하고 결함 있는 인물로 평가절하되면, 그 개인은 스스로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상실하게 된다. 호네트는 “사회적 모욕과 굴욕의 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당”한 인간의 고통은 “신체적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과 같다”고 역설한다.⁴⁷⁾ 이지안과 염미정은 프리캐리아트 여성 노동자로서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무시의 경험을 통해서 존재에 대한 멸시, 즉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박해영 작가의 두 작품은 에로스가 아니라 타나토스가 지배하는 세계의 불안정 노동자인 여주인공의 구원이나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고민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불안정노동 사회에서 기업의 비대한 권한 속에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로서의 권리 행사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고⁴⁸⁾,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통합이 약화 되어가는 현실 앞에⁴⁹⁾ 프리캐리아트 여성에게 집단적 권력투쟁은 요원해 보인다. 박해영의 작품에서 프리캐리아트 여성 노동자는 생산 관계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단지 프리캐리아트 여성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삶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며, 사회적 인정 획득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⁵⁰⁾

문제는 생명력과 자원의 불평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실존적 불평등을 포함한 세 가지 차원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예란 보른테른, 『불평등의 킬링필드』, 문예춘추사, 2014, 68-75쪽.

46)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역, 사월의 책, 2017, 246-249쪽.

47) 위의 책, 256-257쪽.

48) 장귀연, 앞의 책, 80-83쪽.

49) 문성훈, 『인정의 시대』, 사월의책, 2018, 10쪽.

50) 문성훈에 따르면, 인정 획득의 행위는 사회적 인정을 요구하는 심리적 동인에 따라서

박해영 작가가 <나의 해방일지>에서 선보인 ‘추앙’은 사회적 체제에 대한 반항이나 권력 집단에 대한 정치적 운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미정의 ‘추앙’은 주체의 변화를 통한 저항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푸코가 말하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생성하고 구축함으로써, “자기를 배려하라”는 정언명령을 떠올리게 한다.⁵¹⁾ 권력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실천 불가능한 유토피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푸코는 개인이 권력의 지배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권력을 단순히 ‘악’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통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권력을 “전략적 놀이”의 일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통치 테크닉의 남용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정초하기 위해 자아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바라보았다. 푸코에게 주체는 정해진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형식이며,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존재다. 따라서 푸코가 주장하는 “자아에의 배려”는 귀감이 되는 에토스를 형성하며 “자아에 대한 자기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윤리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그리고 진정한 자아에의 배려는 타인에 대한 배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통상의 이기주의와는 다르다. 푸코의 ‘자기 배려’는 개인의 새로운 주체 형성을 통한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방식이다.⁵²⁾ <나의 해방일지>에서 미정이 주장하는 ‘추앙’은 사회가 무시하는 프리카리아트 여성으로서의 실존을 거부하며, 자기 자신을 추앙받을만한 사람으로 여기겠다는 자기 선언이자 자기

‘복종’과 ‘투쟁’으로 나뉜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라는 가치가 정해지지 않아 받게 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치 질서에 ‘복종’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미 정해진, 현존하는 가치 질서가 유발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으로서 ‘투쟁’이 있다.(위의 책, 96-100쪽.)

51) 미셸 푸코, 『주체의 해석학』, 심세광 역, 동문선, 2007, 284쪽.

52) 미셸 푸코,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정일준 역, 새물결, 1994, 104-125쪽.

실천으로서, 신자유주의 시대에 저항하는 '자기배려'의 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상호인정을 통해 형성된 노동자의 연대가 확대된다면, 사회적 통합의 강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⁵³⁾ 궁극적으로는 프레카리아트 여성의 인정 획득을 통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적 차원의 변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나의 아저씨>는 프레카리아트, 이지안이 자신의 아저씨를 만나면서 행복을 찾았다고 할 때, <나의 해방일지>의 구씨를 박동훈과 같은 인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염미정이 만나는 구씨는 호스트바의 이인자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왔던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서 밀린 돈을 갚으라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협박하는 등, 박동훈에 가깝다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아저씨> 속 지안을 괴롭혔던 사채업자, 광일과 더 닮아있다. 다시 말해 <나의 해방일지>는 '나의 아저씨'가 부재한 사회에서 불안정 노동자는 어떻게 연대하고 해방될 수 있는가를 질문한다고 할 수 있다.

3. 정규직 남성 노동자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연대의 서사로서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의 주인공 지안은 박동훈이 일하는 삼안 E&C의 파견직 직원으로, 부모가 남긴 부채로 인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청각장애와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모셔야 하는 가장이다. 심지어 할머니를 괴롭히는 사채업자를 실수로 죽음으로 내몰면서 살인자라는 낙인마저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지안은 밀린 사채를 탕감하고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 위해

53) 위의 책, 10쪽.

서 회사의 대표인 도준영에게 동훈을 회사에서 쫓아내 주겠다고 돈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지안은 의도적으로 동훈에게 밥을 사달라고 접근하고, 동훈의 휴대전화를 도청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갈등했던 동훈과 지안은 점차 서로를 도와주기 시작한다. 먼저 동훈이 법과 제도를 잘 모르는 지안이 부모의 부채를 물려받아야 했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지안을 도와주기 시작한다. 지안에게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려주면서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수 있도록 돕고, 지안을 괴롭히는 사채업자 광일에게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한다. 즉 동훈이 지안이 겪는 현실적 고난을 물리치는 데 일조하는 과정은 정규직 노동자가 파견직 근로자를 돕는 서사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손님이 남긴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극빈의 상황에서, 지안에게 사채업자 광일의 빚 독촉은 견디기 어려운 폭력이다. 지안이 이미 사채업자인 광일의 아버지를 ‘살인’이라는 방식으로 거세했지만, 빚은 사라지지 않고, 사채업자의 아들인 광일이 대를 이어 지안을 괴롭힌다는 점에서 쉽사리 떨쳐낼 수 없는 사채업과 지안의 관계는 끊임없는 부채에 시달리는 열악한 노동자의 알레고리로 읽어볼 수 있다. 사실상 끊임없는 부채로 인해 지안이라는 노동자는 노동에서 해방될 수 없다. 워너 본펠드와 존 홀러웨이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가 신용의 확장, 다시 말해 부채의 장려를 통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동자 계급이 연대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할 때⁵⁴⁾, 동훈이 지안을 돕기 위해 사채업자 광일에 대항하는 장면은, 부채를 뛰어넘기 위한 노동자의 연대라고 볼 수 있다.⁵⁵⁾

54) 워너 본펠드·존 홀러웨이, 「결론: 화폐와 계급투쟁」,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 이원영 역, 갈무리, 1999, 305-309쪽.

55) 이야기의 결말에서 사채업자 광일이 지안을 도우면서, 사채업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그림 5〉 광일과 동훈이 싸우는 장면(〈나의 아버지〉 9화)



〈그림 6〉 두 사람의 싸움 소리를 듣고 있는 지안 (〈나의 아버지〉 9화)

동훈 : 왜 애를 때 새끼야. 불쌍한 애를 왜?

광일 : 그년이 우리 아버지 죽였으니까. 그년이 죽였어. 우리 아버지. 그년이 죽었다고.

동훈 : 나 같아도 죽여. 내 식구 때는 새끼들은 다 죽여. (〈나의 해방일지〉 9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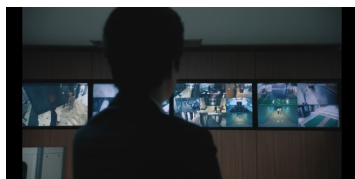
동훈은 지안의 빛을 갚아주기 위해서 사채업자인 광일을 찾는다. 동훈이 법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광일과 싸우는 장면은 상무로의 진급을 앞둔 동훈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며, 낡은 건물의 계단 끝에서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는 두 사람의 싸움은 과잉 폭력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⁵⁶⁾ 동훈은 법의 논리가 아니라 가족의 윤리로 지안의 어두운 과거를 감싸 안고, 이러한 동훈의 진심은 불법 도청을 통해 지안에게로 전달된다. “가족에 대한 의무는 성실하게 다하는 답답한 인간”(〈나의 아버지〉

이 봉합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광일의 변화는 지안이 광일을 그저 사채업자로 보지 않고, “착했던 애예요. 나한테 잘해줬었고. 그땐 눈빛이 지금 같지 않았어요.”(〈나의 아버지〉 10화)라며, 인간, 광일로서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56) 〈나의 아버지〉에서 동훈과 광일이 싸우는 장면은 〈나의 아버지〉 9회에서 10화로 이어지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지안이 오랫동안 우는 장면이 등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결국 동훈이 지안의 빛을 갚는 것이 아니라, 지안이 도준영 대표에게 받은 돈으로 빛을 해결한다는 점이다. 지안은 동훈이 실질적으로 빛을 해결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지지해줬기 때문에 동훈에게 매료된다.

4화)인 동훈은 지안이 장애가 있는 할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나서, 지안에게 “착하다”(〈나의 아저씨〉 5화)고 칭찬한다. 나아가 동훈은 할머니를 괴롭히는 사채업자를 죽였던 지안의 과거마저도 지지하며, 살인이라는 행위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로 읽어낸다. ‘착한 아이’라는 동훈의 일관된 인정을 통해서, 지안은 자기 존엄을 기억하게 된다. 인정을 통한 연대를 주장하는 악셀 호네프의 이론을 상기한다면, 작품에서 동훈의 태도는 관용과 정서적 관심을 통한 “사회적 가치부여”의 행위로서, 두 사람 사이의 연대의 초석이 된다고 볼 수 있다.⁵⁷⁾

삼안 E&C는 CCTV로 둘러싸인 회사 사무실에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대표 자리를 두고 암투가 벌어지는 정치판이다.



〈그림 7〉 박동운 상무가 CCTV로 감시중이다.(〈나의 아저씨〉 1화)



〈그림 8〉 회사의 정치판을 장기판 위의 딱지로 풍자하고 있다.(〈나의 아저씨〉 1화)

동훈은 대기업 회사의 부장으로, 지안보다 노동자로서의 지위나 가정 형편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동훈의 회사에서의 위치 또한 불안정하다. 잘나가는 설계팀에서 밀려나고 후배를 직장 상사로 모시면서 좀처럼 승진하지 못한 채 만년 부장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회사를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직장을 잃고 아내와도 별거 중이며 딸의 결혼식에서 부조금을 빼돌려야 하는, 반백

57) 악셀 호네프, 앞의 책, 246-249쪽.

수로 살아가는 자신의 형과 마찬가지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견 안정적인 정규직 노동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동훈의 입지는 불안하다. 건물의 안전을 진단하는 기술자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건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한다. 그래서 <나의 아저씨> 1화에서 동훈이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 높은 건물을 오르다가 순간의 실수로 진단 기기를 떨어뜨려서 기기가 깨지는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높은 곳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동훈의 위태로운 입지를 반영하는 듯하다.



<그림 9~12.> 고층 굴뚝에 올라가서 안전진단하는 동훈

지안은 회사에서 동훈이 대표이사, 도준영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도록 돕는다. 동훈은 대표이사 도준영으로 인해서 가정과 회사에서 모두 위기를 맞이한다. 불법 도청을 통해서 동훈의 아내가 도준영과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안은, 동훈을 “제일 지겹고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자 “성실한 무기징역수” 같다고 여기면서, 자발적으로 동훈을 돕기 시작한다. (<나의 아저씨> 4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이 무가치하다며

고통스러워하는 동훈을 위로하는 사람이 지안이다.

동훈 근데 나 그렇게 괜찮은 놈 아냐.
지안 (일 초의 망설임 없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엄청.
동훈!
지안 좋은 사람이에요. ... 엄청. (중략)

동훈은 실없는 미소를 띄면서도 울컥하고, 그런 동훈의 얼굴 위로,

[INS] 11화: “넌 그 새끼랑 바람 핀 순간, 나한테 사망 선고 내린 거야.
박동훈 넌 이런 대접받아도 짠 인간이라고,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그냥 죽
어버리라고...”

그런 생각에 동훈은 눈물이 날 것 같아 괜히 다른 곳을 응시하고, 설움과
감동을 누르며 그렇게 있는 동훈, 그런 동훈의 심정을 느끼며 가만히 있는
지안의 모습에서 엔딩.⁵⁸⁾(밑줄 및 강조는 인용자)

동훈은 지안을 통해서 ‘괜찮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자신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
던 동훈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지안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유용성을
증명받는다.

지안은 동훈을 비위 혐의로 몰려고 했던 도준영에게 저항하며, 회사와
동훈의 아내에게, 자신에게 도청까지 지시해왔던 도준영의 실체를 알린
다. 도청이 불법이기 때문에, 지안은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동훈을
도왔던 것이다. 결말에 이르러 <나의 아저씨>는 대표이사인 도준영의 계

58) 박해영, 『나의 아저씨 2』, 세계사컨텐츠그룹, 2022, 191쪽.

락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동훈과 파견직 직원인 지안이 마침내 연대를 이뤄내며, 대표이사를 몰아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아저씨>는 연대를 통해 자본가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승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두 노동자는 연대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를 구축한다. 지안의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동훈은 지안에게 “다 죽어가는 나 살려 놓은 게 너”라고 고백하고, 지안은 동훈을 만났기 때문에 “처음으로 살아봤”다고 응답한다.<나의 아저씨> 16화) 두 사람이 서로를 살렸다는 고백은 두 사람의 연대가 승진이나 채무로부터의 해방 등의 물질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배경으로 사람 파악하고,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빠르게 왕따시키는 직장 문화에서, 스스로 알아서 투명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회식 자리에 같이 가자는, 그 단순한 호의의 말을 박동훈 부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박동훈 부장님은, 파견직이라고, 부하 직원이라고, 저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 다. (중략) 무시, 천대에 익숙해져서 사람들에게 별로 기대하지 않았고, 인정받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 다. 근데 이제 잘하고 싶어졌습니다.<나의 아저씨> 12화)

지안은 동훈과의 만남을 계기로 타인에게 잘하고 싶어지고, 자신을 팬 찰은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그리하여 지안은 동훈에게 감사를 보낸다. 이러한 지안의 응원을 통해 동훈은 죽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된다.

죽고 싶은 외중에, 죽지 마라, 당신 팬찰은 사람이다, 파이팅해라 그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숨이 쉬어져.<나의 아저씨> 13화)

드라마의 결말에서 법적인 문제를 잘 처리한 지안은 삼안 E&C 회장의

도움으로 회장 지인의 회사에 취직하게 된다. 도훈은 상무로 승진하지만, 곧 삼안 E&C를 그만두고, ‘동훈구조사무실’이라는 자기만의 회사를 차리게 된다. 즉, 박동훈 부장은 대표로, 비정규직 노동자인 지안은 사원 출입 증 팻말을 차고, 이제는 운동화가 아닌 구두를 신은 정규직 노동자가 되면서, 두 사람의 신분 상승을 통한 해피엔딩을 보여준다.

이러한 동훈과 지안의 연대는 불법 도청을 통해 파생되었다는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다. <나의 아저씨>의 기획 의도는 주변에 실재하는 사람들에게 감동하고 싶다는 욕망에서 출발한다. “우러러 볼만한 경력도, 부러워 할만한 능력도 없”는 “길거리에 넘쳐나는 흔하디흔한 아저씨들. 허름하고 한심하게 보이던 그들이, 사랑스러워 죽을 것”이라고 선언한다.⁵⁹⁾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는 전제가 있다. <나의 아저씨>에 따르면 불법 도청을 통해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파악해야만 가능한 것이다.⁶⁰⁾

지안이 자신을 도청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안을 보듬어 안은 박동훈은 마치 픽션이 축조한 실존 불가능한 인물처럼 보인다. 박동훈이라는 인물은 박동훈을 지지하는 원-가족과 후계동 공동체를 배경으로 탄생했다.⁶¹⁾

59) 무기명, 「나의 아저씨 기획의도」, 『tvN』, 생성일자 알 수 없음, <https://tvn.cjenm.com/ko/mymister/about/>. (접속일: 2025.1.25.)

60) 지안의 집이 위험한 곳에 자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정희네’에서 모였던 박동훈과 조기축구회의 아저씨들은 지안을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한다. 그러나 지안이 동훈의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을 듣고 조기축구회의 일원인 제철은 그날 지안의 집을 바래다줬던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부장이라면 집에 데려다주기보다는 택시비를 건네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소해보이는 일화이지만, 불법 도청이 없다면 아저씨들의 진심은 전해지지 않았으리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61) 이와 같은 가정의 중요성은 작가의 전작, <또 오해영>에서도 나타난다. 박해영 작가의 작품, <또 오해영>의 주인공, 오해영은 결혼 전에 차이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은 동명의 친구와의 비교 속에서 사랑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러나 자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박도경에게 매달리며, 주저 없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오해영의 태도는 되려 오해영의 높은 자존감을 증명한다. 실제로 <또 오해영> 서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오해영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또 다른 오해영이 아이러니하게도 안락한 가정에서 사랑

그러나 역설적으로 존재의 기반이 되는 가정이나 공감과 위로를 제공하는 박동훈이 없는 세계에서 빈곤한 청춘은 어떻게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지안의 가난한 처지를 이용해 도청과 같은 불법적인 일에 동조하는 도준영과 같은 아저씨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작가는 주변에서 볼 수 있을법한 평범한 아저씨로 구성된 공감의 공동체를 직조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안이 박동훈을 만난 과정은 어디까지나 ‘우연’에 기초하며, 지안이 도청을 통해 박동훈의 내면의 진정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박동훈을 믿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안과 박동훈의 조우는 기적과도 같다. 그렇지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나 공감의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는 청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편 불안정 노동자로서 고통을 겪었던 지안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면서, 편안함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규직 노동자였던 박동훈이 높은 사회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름의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불안정노동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곧 모든 문제의 해답일 수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동훈의 인정을 기반 삼았던 지안은 작품의 말미에 삼안 E&C 회장의 보증 덕분에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된다. 동훈만큼이나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인물이 바로 삼안 E&C의 회장이다. 지안의 과거를 다 알고도 자신의 회사를 좋게 바라보았다는 사실에 감탄하여 지안을 지인의 회사에 취직시키면서, 지안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아저씨들 없이는 과연 지안이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 젠더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안의 개인적 행복이나 성취가 박동훈이나 삼안 E&C 회장이라는 남성의 선의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작가는 <나의 해방

받고 자란 자신을 질투했다는 사실을 알고 각성하는 장면이다.

일지〉를 선보인다.

4. 여성 프레카리아트 노동자 해방의 서사로서 〈나의 해방일지〉

박동훈과 지안의 연대는 서로를 연민하는 ‘불쌍한 감정’에서 출발한다. 동훈이 지안이 자신을 좋아하는 이유가 동훈이 불쌍해서라고 하자, 지안은 동훈도 마찬가지라고 응수한다. “똑같지 않나?” “우린 둘 다 자기가 불쌍해요.”(〈나의 아저씨〉 12화) 두 사람이 불쌍하다고 말하는 대상은 상대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상대를 연민으로 바라보는 시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자기 모멸이 공존한다.⁶²⁾ 불쌍하다는 연민으로 시작한 두 사람의 연대는 불법 도청이라는 테크놀로지 차원의 매개를 통해서 현실 속 주체의 분열을 봉합하고,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⁶³⁾ 동훈은 지안이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항변하고 불법 도청을 통해 그런 항변을 지안이 듣게 되면서 지안은 동훈의 진심을 알게 된다. 서사의 결말에서 지안이 불법 도청을 증거물로 내놓음으로써 이번에는 지안이 동훈을 위기에서 구한다. 동훈과 지안은 서로를 불쌍하게 바라보고 구원한다. 특히 에로스보다도 가족이나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가족 윤리를 배경으로, 동훈과 지안의 관계는 흡사 유사 가족 공동체를 형성한 것처럼 보인다.⁶⁴⁾ 그러나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동훈 같

62) 김공숙은 마사 누스바움의 연민 이론을 차용하여 두 사람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을 통해 “수치와 자기혐오를 벗어나 자기연민”에 다다른다고 주장한다.(김공숙, 「드라마 〈나의 아저씨〉 서사에 나타난 연민의 감정: 마사 누스바움의 연민 이론의 관점에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45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3, 152쪽.)

63) 권두현, 앞의 글, 81-82쪽.

은 사람이 없다면, 도청과 같은 매개가 없다면 이들 연대는 어떻게 성립할 수 있을까? 사실상 이 지점에서 작가가 찾아낸 답안이 ‘추앙’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해방일지〉에서 카드회사 계약직 직원인 미정은 경기도 산포에서 거주하며 긴 통근 시간에 시달리고, 회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차별에 시달린다. 미정의 상사는 계약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미정의 디자인 안목을 무시하며, 심지어 회사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발각될 두려움에 불륜 상대방의 이름으로 의도적으로 염미정으로 저장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저지른다. 미정이 사귀었던 선배인 찬혁은 다른 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 찬혁을 위해 미정이 은행에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미정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실을 가족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미정은 구씨에게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서 오는 독촉장을 몰래 숨겨달라고 부탁한다. 회사에서 관계에서 무시당하는 삶에 지친 미정은, 아버지의 공장에서 과도 노동에 시달리며, 술로 하루를 연명하는 망가진 구씨에게 ‘추앙’을 명령한다.

술 말고 할 일 줘요? 날 추앙해요.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개새끼, 개새끼, 내가 만났던 놈들은 다 개새끼.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조금 있으면 겨울이에요. 겨울이 오면 살아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게 앉아서 보고 있을 것도 없어요. 공장에 일도 없고 낮부터 마시면서 쓰레기 같은 기분 견디는 거 지옥 같을 거예요. 당신은 어떤 일이든 해야 돼요. 난 한 번은 채워지고 싶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사랑으론 안돼. 추앙해요.(〈나의 해방일지〉 2화)

미정은 추앙의 정체를 묻는 구씨의 질문에 “넌 뭐든 할 수 있다, 뭐든 된

64) 김세훈, 앞의 글, 118-121쪽.

다, 응원하는 거”라고 대답한다.(<나의 해방일지> 4화) 그리하여 구씨가 보여준 추앙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서 냉동고에 넣어두거나, 바람에 불어 날아간 모자를 줍기 위해서 멀리뛰기를 해서 도랑을 넘는 등의 사소한 행동들이다. 드라마 속에서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지만, 모자를 줍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약하는 우스꽝스러운 구씨의 행동은 추앙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3~15> 구씨가 미정의 모자를 주워오는 모습

미정이 요구하는 추앙이 상대에 대한 응원이 전부라면, <나의 아저씨>에서 박동훈과 이지안이 보여준 연대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정이 요구하는 추앙은 첫째, 추앙의 상대가 무조건적일 것을 요구하며, 둘째,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나의 아저씨>에서 불법 도청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박동훈과 이지안이 서로에 대한 연민을 기반으로 연대를 구성할 수 있었다고 할 때, 상대의 진정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조건으로 성립하는 연대와는 달리 <나의 해방일지>에서 미정은 잘 모르는 상대를 향한 무조건적 응원을 명령한다.

생각하면 좋기만 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만 있다면! 양금 하나 없이, 생각하면 좋기만 한 사람이 있다면! 만들어 보자. 그런 사람. (중략) 나는 해방 될 것이다.⁶⁵⁾

65) 박해영, 『박해영 대본집. 나의 해방일지 1』, 11쪽.

작가 박해영은 염미정의 캐릭터를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정에게 생각하면 좋기만 한 사람이란 그 사람이 원래 좋은 사람이기 때문은 아니다. 미정이 구씨의 이름이나 과거를 묻지 않고, 구씨에게 추앙을 요구하는 이유는 미정의 추앙이 구씨의 본질이나 가치에 기대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정의 추앙은 미정이 생각하면 좋기만 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미정의 결심에 근거한다. 다시 말해 추앙의 힘은 상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무관하게 나의 단호한 결정과 결심이 탄생시키는 것이다. 미정은 구씨를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삼기로 “결심”한다.(〈나의 해방일지〉 16화) 그리하여 미정은 알콜중독자, 구씨에게 한 번도 술을 끊으라고 종용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구씨에게 술을 사다준다. 그리고 구씨가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린 후에도, 미정의 이러한 결심으로서 추앙은 계속된다. 결정적으로 미정은 구씨의 이름조차 묻지 않는다.

근데 당신은 처음부터 **결심**하고 만난 거니까. ‘더 이상 개새끼 수집 작업은 하지 않겠다.’ 잘돼서 날아갈 것 같으면 기쁘게 날려 보내줄 거고, 바닥을 킁다고 해도 쪽팔려하지 않을 거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응원만 할 거라고**, 당신이 미워질 것 같으면 얼른 속으로 빌었어.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기를, 숙취로 고생하는 날이 하루도 없기를....(〈나의 해방일지〉 16화)(밑줄 및 강조는 인용자)

미정의 추앙에 대한 요구는 미정에게 내재한 인정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 전 연인, 찬혁에게 배척당한 미정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빚 독촉과 같은 물질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미정은 자신이 상대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실망감과 부끄러움으로 인해 고통스럽다. 미정이 불행한 이유는 단

순히 찬혁 때문만은 아니다. 미정은 부족한 연인이라고 할지라도,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을 돈 때문에 미워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모멸감을 느낀다. 그래서 미정은 구씨에게 추앙을 요구하고 자신도 구씨를 추앙하겠다고 다짐한다. 미정의 추앙은 어떤 순간에도 구씨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인간 대 인간으로 응원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구씨가 어떤 인물이건 어떤 행동을 하건 응원하겠다는 미정의 태도는 무조건적이며 급진적 인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⁶⁶⁾ 상대방으로부터의 모욕과 무시를 극복하고 자기 모멸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나의 해방일지>에서는 일견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추앙에의 요구를 제시한다.

이러한 미정의 ‘추앙’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환대’로 이어진다. 미정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무시했던 전 애인, 정찬혁과 은행 ATM 기기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다. 찬혁의 결혼식에 찾아가서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릴 생각까지 했던 미정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돈다. 그런데 찬혁의 가방이 앞에 선 여성을 의도치 않게 스쳤고, 이로 인해 찬혁이 성추행으로 몰릴 위기에 처하자, 미정은 그 여성에게 찬혁의 행동이 성추행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전하며 찬혁을 도와준다. 뜻밖에 미정이 먼저 보여준 선의에 찬혁은 자발적으로 미정의 돈을 갚겠다고 말하며 처음으로 사과를 전한다. 조건 없이 미정 이 찬혁을 돕고, 그에 대한 화답으로 찬혁이 미정에게 존중을 되돌려주었을 때, 미정은 자기 존

66) 낸시 프레이저에 따르면 이러한 추앙은 불가능하다. 낸시 프레이저는 “타자가 나를 실제 존재하는 대로, 다시 말해서 사실상 자신이 자신을 존중하고 평가하는 대로 존중하고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정 욕망이라면, 이러한 인정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낸시 프레이저,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낸시 프레이저의 비판적 정의론과 논쟁들』, 문현아·박건·이현재 역, 그린비, 2022, 507쪽.) 그리하여 낸시 프레이저는 개인적 차원의 인정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위의 책, 212-215쪽.)

엄성을 다시 확인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⁶⁷⁾

이 에피소드 이후로 미정은 구씨에게도 구씨가 술을 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과거의 지난한 인연들을 환대해 보라고 권유한다. 추앙이라는 결심, 적대하던 타인에 대한 환대는 미정의 자기애, 자기 효능감으로 귀결되며, 미정이 자기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기도록 추동한다. 그리하여 ‘추앙’은 주체를 스스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든다. 이러한 미정의 추앙은 ‘자기 배려’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미정 나 미쳤나봐.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구씨 한 발 한 발

미정 마음에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느낄 게 사랑밖에 없어.(<나의 해방일지> 16화)



<그림 16~17> 환하게 웃는 구씨와 염미정

67) 악셀 호네테에 따르면, 개인은 자기 자신의 대상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며, 이러한 점에서 나 자신은 곧 “상대방의 관점에서 인지된 상호작용 상대자”라고 할 수 있다.(악셀 호네테, 앞의 책, 50-151쪽.) 한 개인의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되며, 상호작용의 상대자들을 인정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사회적 협력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는 순간, 자기 자신의 존엄함을 느끼게 된다.(위의 책, 158-161쪽.) 세넬에 따르면 존중을 획득하는 방식은 ‘자기 계발’, ‘자기 돌봄’, “타인에게 무언가를 되돌려주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마지막 방식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성을 존중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영원하며 깊은 원천”이라고 주장한다.(리처드 세넬, 앞의 책, 88-89쪽.)

그리하여 무뚝뚝한 얼굴을 보여주던 미정과 구씨는 결말에 가서 환한 미소를 보여준다. 그리고 죽음이 지배하는 타나토스의 세계에서 에로스, ‘사랑’을 말하게 된다.

미정의 ‘추앙’은 사회적 제도의 차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에 머문다. 따라서 미정의 추앙은 미정을 억압하는 현실적인 제도나 구조의 해결이나 자신을 억압하는 담론으로부터의 해방과는 거리가 있다. 미정은 앞서 살펴본 <나의 아버지>에 지안이 이루었던 성취와는 다르게, 대기업을 나와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된다는 점에서 직업이나 직위의 차원에서 볼 때는 성장이나 발전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성취와 무관하게 타인을 배려할 만큼 자신이 충분히 인격적으로 고양된 인간이라는 자기 효능감을 통해 염미정은 자기 해방에 이른다.⁶⁸⁾

푸코는 소위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대 담론을 의문시하면서, 오히려 개인적 차원에서 자아에 대한 배려를 통해 자유의 실천과 만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자아를 변형시키고,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 양식에 도달시키기 위해 자아를 훈련하는 “주체의 자기형성적 실천”을 통한 “자기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푸코의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는 “타자와의 관계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거대 담론으로서 해방을 대문자 해방, 자기 자신과 타인을 배려하는 주체의 실천을 소문자 해방이라고 할 때, <나의 해방일지>의 해방은 후자에 맞닿아 있다.⁶⁹⁾ 푸코의 통치술을

68) 타인을 향한 응원과 배려를 통해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되는 자기 배려의 과정은 박동훈과 이지안의 관계에서도 발견되었던 것이다. <나의 아버지>에서 동훈의 형, 상훈도 지안의 할머니의 장례식 비용을 자신이 부담한 뒤, “나 오십 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좋아본 적이 없다. 날 막 안아주고 싶어. 내가 너무 좋아.”라고 기쁨을 표출한다. 그리고 장례식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상훈은 지안에게 되레 “고맙습니다. 덕분에 내 인생의 가장 기뻐하는 순간 박아 넣었습니다.”라며 고백한다.(<나의 아버지> 16화)

69) 미셸 푸코,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앞의 책, 101-107쪽. <나의 해방일지들> 푸코의 자기 테크놀로지를 언급하는 선행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김동환과 홍종열은 <나의 해

기반으로, 몇몇 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여성이 성공적인 커리어 우먼이자 가정의 양육 담당자로 양립하도록 자기 자신을 규제하게 함으로써, 사회가 돌봄이라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지적한 바 있다.⁷⁰⁾ 미정은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자기 형성에서 벗어나 존중을 통한 자기 배려에 다다르고자 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통치술에서 벗어난 자유와 자기 해방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나의 아저씨>와 다른 점이 있다면, 추앙과 같은 맹목적 애정이 향하는 방향이 유사 가족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추앙할 결심에서 출발한 추앙은, 상대의 애정이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삼 남매의 어머니인 곽혜숙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특히 이를 반증한다. 혜숙이 죽자 삼 남매는 어머니가 하던 일을 떠맡는다. 아버지 공장 일을 돕는 것부터 빨래, 음식과 같은 집안일을 수행하면서, 가족들은 혜숙이 “과로사”했다고 생각한다.(〈나의 해방일지〉 14화) 따라서 경기도 산포시 미정의 가족은 어머니 곽혜숙의 “과도한 희생과 사랑”에 의해 지탱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⁷¹⁾ 혜숙의 부재로 인한 돌봄노동을 견디지 못한 아들 창희는 아버지 염제호의 재혼을 적극적으로 돕기에 이른다. 죽을 때까지 밥을 안치다가 생을 마감한 어머니, 혜숙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희생했으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자기 배려’에 실패한 표상으로 보인다.

방일지)를 전체를 관통하며, 범박한 의미에서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찾으며(김동환·홍종열, 앞의 글, 247쪽.) 황혜진은 미정에게서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발견한다.(황혜진, 앞의 글, 97쪽.)

70) 엄혜진, 「신자유주의와 페미니즘의 분열적 결속: 페미니즘의 신자유주의 비판 쟁점들과 함의」, 『한국여성학』 제41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25, 68-69쪽; 박소진, 「자기 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경제와 사회』 제84호, 비판사회학회, 2009, 17쪽.

71) 이정옥, 앞의 글, 162쪽.

이러한 어머니, 광혜숙의 죽음은 <나의 아저씨>와 비교할 때 그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나의 아저씨>에서 노모인 변요순은 세 아들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마흔이 넘어 청소 노동하는 두 아들의 도시락을 싸고, 결혼한 동훈 가족을 위해서 김치와 같은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하며, 심지어 혼자서 가게를 꾸리는 정희를 돕는다. 동훈을 제외한 두 아들은 여전히 노모의 오래된 빌라에서 거주한다. 동훈 아내의 바람의 이유가 원가족에게서 멀어지지 못한 남편에 대한 원망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변요순의 자식들은 독립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변요순을 주축으로 한 삼형제의 가족 공동체가 연장되어 박동훈의 후계동 공동체를 떠받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²⁾

그런데 <나의 해방일지>에서 어머니인 광혜숙이 죽자,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요원해 보이던 삼 남매의 독립이 즉각적으로 이뤄진다. 삼 남매는 산포시의 고향 집에서 독립하여 서울에서 거주하기 시작한다. 아내의 배려에 기대어 살던 염제호에게 재혼은 필연이었으며, 자식들에게 혼자 살기에는 “힘이 없어”라고 말하는 제호는 마찬가지로 아내에 대한 배려와 자기 배려에 실패한 가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제호가 자식들에게 남긴 “혼자 살아도 된다 싶으면 혼자 살아”라는 조언은 1인 가구의 삶을 종용하거나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이 아니다.<<나의 해방일지> 16

72) 이러한 변요순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자식이 동훈이다. 성실하고 가족을 위해 배려하기만 하는 동훈이 요순에게는 아픈 손가락이다. 동훈의 친구, 겸덕은 이러한 동훈을 비판한다. 출가하여 후계동 공동체 외부에 위치하는 겸덕은 자기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동훈을 안타까워하면서 동훈이 자신만을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의 해방일지> 마지막 회에서 자신이 절에 들어간 후 오랫동안 방황했던 연인, 정희의 가게를 방문한다. 자신이 그동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못 왔지만, 정희를 마주함으로써 이제는 정희의 존재가 자신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경지에 올랐음을 간접적으로 고백한다. 일말의 죄책감마저 걸러내는 겸덕의 태도는 동훈과 비교되며, 겸덕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자본주의 세계의 바깥에 존재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화) 오히려 자기 배려로서의 자기 테크놀로지가 타인에 대한 배려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은 채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계는 자신의 ‘가치’ 평가를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것, 즉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상품의 교환 관계 속에 빠지지 않는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명령하게 된다.

한나 아렌트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환가치를 비판했지만, 사용가치에 대해서는 숙고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아렌트는 마르크스가 교환가치를 “자본주의의 원죄”로 생각하며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변별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렌트가 보기에 사용가치 또한 교환가치와 마찬가지로 유용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코 절대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으며, 자신의 유용성을 타인이 평가하지 않고 자신이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유용성의 뒷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⁷³⁾ 유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하다는 것, 사회적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결심, 네가 누구든 존중하려는 자세, 거기에 추앙의 본질이 있다.

미정의 구씨를 향한 추앙하라는 명령은 그 발화의 형식에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명령의 자리에 있는 것은 화폐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상품 유통 과정에서 교환의 매개자로서의 화폐(C-M-C)에서 M-C-M으로의 전환은 곧, 화폐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통 과정에서 상품이 아니라 화폐가 목적이 되면서, 화폐는 “대중의 삶을 노동으로 되도록 하는 명령”으로서 화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화폐가 점유한 신자유주의의 세계에서 노동자는 화폐를 구하기 위해서 노동할 수밖에 삶의 조건

73)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역, 한길사, 2017, 251-253쪽.

에 놓이게 된다.⁷⁴⁾

그런데 <나의 해방일지>에서 화폐의 노동하라는 명령을 유희하듯, 미정이 화폐의 자리에서 추앙이라는 명령을 배치한다. 그런데 이 추앙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타인을 배려하고, 그리하여 중국에는 나를 배려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추앙의 명령에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정이 구씨에게 추앙을 명령했을 때, 미정은 구씨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모두 관심이 없으며, 오직 조건 없이 구씨의 안녕을 바라고 응원했을 뿐이다. 미정은 구씨의 이름도 과거의 이력도 묻지 않는다. 미정은 14화 말미에 가서야 겨우 구씨의 본명이 구자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15화 말미에 이르러서야 구씨가 자발적으로 털어놓기 전까지 호스트바 출신이었다는 사실도 짐작하지 못한다. 그리고 구씨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도, 미정의 추앙하겠다는 결심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미정의 응원에 힘입어 구씨는 죽음의 기로에서 벗어나 윤락의 세계에서 탈출하게 된다. 화폐가 점거한 세계가 타나토스의 세계라면⁷⁵⁾, 추앙의 명령에 복종하는 순간, 충분히 교환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품화폐의 유통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결국 구씨는 자신을 배신한 형을 환대하며, 중국에는 ‘생(生)’의 원동력을 얻고 에로스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⁷⁶⁾

74) 해리 클리버, 「현재의 위기에서 명령-으로서의-화폐의 전복」,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 이원영 역, 208-210쪽.

75) 위의 책, 210쪽. 미정뿐만 아니라, 구씨도 죽음 가까이에 있다. 구씨의 전 연인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며, 전 연인의 오빠이자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백 사장도 경찰에 쫓기다가 공사장에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백사장의 장례식장에서 구씨는 “난 누가 죽는 게, 이렇게 시원하다”라고 말하지만, 이 말을 하는 구씨의 표정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롭게 풀려나는 듯한 얼굴. 자기혐오로 내달리기로 한 듯. 아주 편안한 미소”로 표현되어 있다.(박해영, 『나의 해방일지 3』, 다산북스, 2023, 244쪽.) 김홍중은 염미정과 구씨에게서 “죽음 충동”을 발견한다.(김홍중, 앞의 글, 232쪽.)

76) 추앙하는 사랑이 언제나 삶을 추동하지는 않는다. 추앙하는 사랑을 보여준 잭 런던(Jack London)의 『마틴 에덴』(*Martin Eden*)에서는 추앙 덕분에 계급적 상승을 이루

4. 나가며

프레카리아트 여성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삼은 박해영 작가의 <나의 아저씨>와 <나의 해방일지>는 한국 사회에서 주변화되어 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전면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박해영 작가의 두 작품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의 해방에 대해 고찰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삼안 E&C라는 대기업을 배경으로 하는 <나의 아저씨>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와의 연대, 세대 간의 격차를 뛰어넘는 연민을 보여주면서 각각 회사의 대표와 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신분적 상승을 보여준다.

그러나 불법 도청을 매개로 한 불안한 노동자 간 연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한 기업가나 관리자의 도덕이나 윤리에 기대지 않는 노동자의 연대란 가능한 것일까? 남성 노동자에게 기대지 않고 주체적인 여성 노동자의 해방을 기대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고민에서 박해영 작가가 새롭게 선보인 작품이 <나의 해방일지>다.

부채와 노동을 증용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맞서 '추앙'은 타인을 배려하는 일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된다는 윤리로서 맞선다. 그리하여 <나의 해방일지>가 선보인 '추앙'은 자본주의의 권력 구조로부터의 대문자 해방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관계로부터의 해방, 자기 모델이나 혐오로부터의 해방과 맞닿으면서, 푸코가 주장했던 '윤리로서의 정치(politics as an ethics)'⁷⁷⁾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면서, 신

있을지 모르나, 결국 자살한 마틴 에덴이라는 인물을 보여준다.(Jack London, *Martin Eden*, New York: Penguin, 1993. 참조)

77) 미셸 푸코, 『자유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열망: 푸코-하버마스 논쟁 재론』, 정일준 역, 새물결, 1999, 94쪽.

자유주의 시대의 존재론을 환기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추앙의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 염미정은 결국 카드회사라는 대기업에서 퇴사했고, 죽어가는 한 사람의 곁에 있기 위해 염창희는 바라던 소중한 사업의 기회를 놓치고 빛에 시달려야만 했다. <나의 해방일지>에서 죽은 어머니의 빈 자리가 만든 돌봄 노동은 누군가에게 전가되어야만 했고,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그 결과로서 자기 존중이 곧 경제적 해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또한 <나의 해방일지>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요하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인정과 존중을 통한 개인의 해방을 목표로 하지만, 결코 자신이나 타인이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밥을 안치다가 죽음을 맞이한 곽혜순처럼 타인을 위한 배려가 희생이 되는 순간 자기 배려는 멀어진다. 다시 말해 자기 배려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동반되어야 '추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IMF 이후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 구조가 고착되고, 노동조합이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 비정규직 프레카리아트 여성 노동자가 자기 존엄을 사회에 요구하는 드라마가 <나의 해방일지>라고 할 수 있다. <나의 해방일지>에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미정이 추구하는 해방은 경제적 해방이나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혹은 젠더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으로 곧장 이어지지 못한다. 그러나 미정은 '추앙'을 요구하면서, 신자유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유용성의 증명으로부터 해방을 꿈꾸며, 자기 존엄을 선언한다. 추앙이라는 정언명령은 남성도 아니고, 정규직 노동자도 아니며, 서울에 거주하지 못하며, 빛에 시달리는 처지라 할지라도 나는 추앙받을만하며, 당신도 역시 그렇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나의 해방일지>는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만 주변부 노동자로서 느끼는 자괴감과 자기 불신으로부터의 해방은 가능하다는 믿음에 정초해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박해영 극본, 김석운 감독, <나의 해방일지> 1, JTBC, 2022.4.9. ~ 박해영 극본, 김석운 감독, <나의 해방일지> 16, JTBC, 2022.5.29.
- 박해영 극본, 김원석 감독, <나의 아버지> 1, tvN, 2018.3.21. ~ 박해영 극본, 김원석 감독, <나의 아버지> 16, tvN, 2018.5.17.
- 박해영, 『나의 아버지 1』, 세계사컨텐츠그룹, 2022.
- _____, 『나의 아버지 2』, 세계사컨텐츠그룹, 2022.
- _____, 『박해영 대본집. 나의 해방일지 1』, 다산북스, 2023.
- _____, 『박해영 대본집. 나의 해방일지 2』, 다산북스, 2023.
- _____, 『박해영 대본집. 나의 해방일지 3』, 다산북스, 2023.
- _____, 『박해영 대본집. 나의 해방일지 4』, 다산북스, 2023.

2. 논문과 단행본

- 가라타니 고진, 『역사와 반복』, 조영일 역, 도서출판 b, 2008.
- 가이 스탠딩, 『새로운 위험한 계급』, 김태호 역, 박종철출판사, 2014.
- 강현아, 「노동조합의 불평등구조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 축적적 여성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 제38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5, 96-103쪽.
- 권두현, 「관계론적 존재론의 정동학—<나의 아버지> 안팎에서 벌어진 젠더정치의 기술적 차원에 관하여」, 『한국극예술연구』 제66집, 한국극예술학회, 2019, 43-97쪽.
- 김공숙, 「드라마 <나의 아버지> 서사에 나타난 연민의 감정: 마사 누스바움의 연민 이론의 관점에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45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3, 131-164쪽.
-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21』, 미래의 창, 2020.
- 김동환·홍종열, 「드라마 속 청년세대의 집단적 권태와 능력주의의 인과성 고찰: <나의 해방일지>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61호, 글로벌 문화콘텐츠

학회, 2024, 237-248쪽

김세준, 「공동체적 윤리에 대한 초월적 상상력 고찰: TV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대상으로」, 『스토리&이미지텔링』 제21집,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21, 99-125쪽.

김영란, 「신자유주의와 여성빈곤」, 『평화학연구』 제8권 3호,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7, 281-304쪽.

김유민, 「한국 사회의 에로스 자본과 낭만적 사랑 : 〈마스크걸〉과 〈나의 해방일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김홍중, 「붕괴와 추앙 사이 - 〈헤어질 결심〉과 〈나의 해방일지〉에 대하여」, 『뉴 래디컬 리뷰』 제3권 2호, 뉴 래디컬 리뷰, 2023, 226-239쪽.

낸시 프레이저,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낸시 프레이저의 비판적 정의론과 논쟁들』, 문현아·박건·이현재 역, 그린비, 2022.

드레이퍼, 『계급과 혁명』, 정근식 역, 사계절출판사, 1986.

리차드 세넷, 『불평등 사회의 인간 존중』, 유강은 역, 문예출판사, 2025.

문성훈, 『인정의 시대』, 사월의책, 2018.

미셸 푸코,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정일준 역, 새물결, 1994.

_____, 『자유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열망 : 푸코-하버마스 논쟁 재론』, 정일준 역, 새물결, 1999.

_____, 『주체의 해석학』, 심세광 역, 동문선, 2007.

박미경, 「도구적 관계 사회에 대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성찰」, 『한국언어문학』 제125집, 한국언어문학회, 2023, 169-200쪽.

박소진,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경제와 사회』 제84호, 비판사회학회, 2009, 12-39쪽.

신정아·최용호, 「〈나의 해방일지〉에 나타난 시차적 리얼리즘과 해방의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7권,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2, 315-341쪽.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역, 사월의 책, 2017.

엄혜진, 「신자유주의와 페미니즘의 분열적 결속: 페미니즘의 신자유주의 비판 쟁점들과 함의」, 『한국여성학』 제41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25, 43-91쪽.

요코타 노부코, 『한국 노동시장의 해부: 도시 하층과 비정규직 노동의 역사』, 요코타

- 노부코 역, 그린비출판사, 2020.
- 위너 본펠드·존 홀러웨이, 「결론 : 화폐와 계급투쟁」,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 이원영 역, 갈무리, 1999.
- 이병훈,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노동」, 최태욱 편, 『신자유주의 대안론』, 창비, 2009. 175-219쪽.
- 이승훈, 「늑아내리는 노동, 연대가 어려워진 청년들」, 『광장 이후』, 문학동네, 2025.
- _____,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문학동네, 2025.
- 이영자, 「신자유주의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자성」, 『한국여성학』 제20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04, 99-138쪽.
- 이정옥, 「헤테로토피아적 상상력과 현대사회의 해방과 사랑에 대한 성찰 - <나의 해방일지>를 중심으로」, 『世界文學比較研究』 제85권, 세계문학비교학회, 2023, 153-185쪽.
- 장귀연, 『비정규직』, 책세상, 2016.
- 장은호, 「TV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캐릭터 연구 : 주요인물의 해방의 의미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 조계완, 『우리 시대 노동의 생애』, 앨피, 2012.
- 최윤희·김태완,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해방’과 ‘추앙’ 의미 고찰」, 『인문사회 21』, 제13권 5호, 인문사회 21, 2022, 521-532쪽.
- 카를 마르크스, 『자본론 : 정치경제학비판 I(하)』,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17.
-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주의당 선언」,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김보영 외 역, 박종철출판사, 2016.
-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2』, 최인호 외 역, 박종철출판사, 2018.
-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역, 한길사, 2017.
- 해리 클리버, 「현재의 위기에서 명령-으로서의-화폐의 전복」,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 이원영 역, 갈무리, 1999.
- 황혜진, 「<나의 해방일지>에 나타난 일상의 억압과 주체의 해방」, 『씨네포럼』 제46호,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23, 81-108쪽.

London, Jack, *Martin Eden*, New York: Penguin, 1993.

3. 기타자료

국립국어원, 「추앙」, 『표준국어대사전』, 생성일자 모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접속일: 2025.1.15.)

무기명, 「추앙 신드롬」, 『빅카인즈』, 생성일자 모름. <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접속일: 2025.1.14.)

심윤희, 「[필동정답] 추앙 신드롬」, 『매경칼럼』, 2022.5.24., <https://www.mk.co.kr/news/columnists/10329787>. (접속일: 2025.1.14.)

장주연 편, 「여기 이 작가 : 드라마는 쾌(快)를 위함이죠 - JTBC <나의 해방일지> 박해영 작가」, 『W 방송작가』 196, 2022. <http://www.ktrwawebzine.kr/page/vol196/view.php?volNum=vol196&seq=1>. (접속일: 2025.1.14.)

Abstract

The Liberation of the Female Precariat - Tracing *My Liberation Notes* through Park Hae-young's *My Mister*

Lee, You-Kyung(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o read Park Hae-young's *My Liberation Notes* as a "liberation diary of the worker," a text that seeks an exit from the neoliberal condition. It may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move beyond Park's earlier drama, *My Mister*. The latter dramatizes the solidarity between Park Dong-hoon (박동훈), a tenured employee at the conglomerate Saman E&C, and Lee Ji-an(이지안), a dispatched temporary worker. Dong-hoon, threatened at once by his superior Do Joon-young(도준영) and by stalled promotion, is eventually elevated to executive status through Ji-an's covert assistance. Ji-an, in turn, secures institutional care for her grandmother, extricates herself from predatory lenders, and finds support from the local community in Hugye-dong(후계동). The conclusion, in which Dong-hoon becomes head of his own firm and Ji-an gains permanent employment, stages a tentative happy ending. Yet this solidarity rests on the contingency of illegal wiretapping: it is only because the eavesdropped subject turns out to be an unusually ethical figure that their alliance can unfold—thereby revealing its structural limits.

The drama thus leaves two questions unresolved: How is solidarity possible if one cannot access another's interiority through illicit surveillance? And what if, in the precariat woman's social field, there exists no figure like Park Dong-hoon, but only antagonists such as Lee Gwang-il(이광일)? It is precisely from this impasse that *My Liberation Notes* takes shape. Yeom Mi-jung(염미정), who lives in Sanpo(산포) on the periphery of Seoul, endures long commutes, mounting debt

incurred through an unreliable lover, and the invisible discrimination that marks her as non-regular labor. In her effort to escape these conditions of precarity, she enjoins Mr. Gu(구씨) to “worship” her. Though scarcely different from Gwang-il in terms of social marginality and violence, Mr. Gu becomes, through the practice of unconditional affirmation and care—without inquiry into his past—a vehicle for what might be called a technology of the self: a practice by which both characters move from self-abasement toward self-regard.

In this way, *My Liberation Notes* articulates, in a time when eros has become structurally foreclosed, a form of self-liberation grounded not in romantic attachment but in compassion that exceeds empathy. Park Hae-young’s drama thereby advances a politics as ethics, a mode of subjectivation that reimagines solidarity and liberation within the precarious conditions of neoliberal modernity.

(Keywords: Worship, Liberation, Work, Capitalism, Neo-liberalism)

논문투고일 : 2026년 1월 10일
심사완료일 : 2026년 1월 27일
수정완료일 : 2026년 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26년 2월 14일